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4월 28일 개막

“대면 행사 정상화” 총 18개 섹션 230여 편 규모로 500회차 상영 계획

독립·대안·예술영화의 향연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일정이 공개됐다. 올해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오프라인 대면 행사 정상화를 예고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연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이사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조직위는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중장기적 기대 아래 올해 영화제는 총 18개 섹션, 230여 편 규모로 500회차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대 관객 기록을 경신했던 제19회(241편·536회차)나 제20회(265편·559회차)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숫자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제21회(194편·장기 상영) 및 제22회(186편·356회차)와 비교해 정상 규모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영화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과 연계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며, '태형영화사 회고전' 기획을 준비의 시작으로 삼았다.

'태형영화사 회고전'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공헌한 태형영화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한 행사다. 1980~1990년대 한국 영화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태형영화사의 공로와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태원 태형영화사 전 대표를 기리는 의미 또한 담았다.

이를 통해 '취화선' (2002), '세기말' (1999), '금홍야 금홍야' (1995), '장미빛 인생' (1994),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진.

'경마장 가는 길' (1991), '개그맨' (1989), '기쁜 우리 젊은 날' (1987), '장남' (1985) 등 한국 영화사의 뿌리와 맞닿은 8편의 작품이 관객을 만난다.

또 영화제 카탈로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발행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J 매거진'을 올해 영화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주 영화의거리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을 관람하는 '골목 상영' 프로그램,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프로그램 기획 등 전주 시민과 가족 단위 관객의 발길을 붙들 부대행사 소식도 눈길을 끈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전주국제영화

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조건 아래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를 실험하며 국내 영화제 개최의 지표를 마련하는 일에 힘썼다"며 "제21회 영화제는 국내 국제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상영을 도입하고 장기 상영회를 마련해 114일간의 최장기 영화제로 치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2회 영화제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꾸며졌다"며 "완전히 안심하기에 이른 시기지만, 단계별 방역 조치 기준에 따라 진행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영화제 현장에서는 예년보다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논개충절무' 무보책 발간

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

(사)의암주논개정신 선양회(회장 신봉수)는 논개님의 거룩한 사랑과 충절을 극혼으로 승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개충절무'를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한국 무용으로 영구히 전승될 수 있도록 무보책을 장장 135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여 발간했다.

'논개충절무' 무보(舞譜)는 논개님의 혼이 녹아있는 춤, 먼 후대까지 길이 물려 줄 품격 있는 춤, 장차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전통 춤으로 춤사위를 정형화하여 제작했다.

이 무보를 발간 하게된 동기는 그동안 논개님을 주제로 한 많은 공연물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 1회성 공연에 그쳐 논개정신과 함께 오래도록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봉수 선양회장 취임 후 첫 작품이다.

그동안 10년간 운영 해오다 중단해 잠들어 있던 논개충절무를 15년 전 무용과 다른 안무와 음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특히 논개 충절무 제작은 공모를 통해 전



전북대 교수를 역임한 장인숙 님마루 무용단 대표가 혼신을 다해 만들었으며 장수와 전주에 '논개충절무' 무용단(30명)을 만들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두 차례 걸쳐 공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논개충절무는 의암주논개님의 일을 되살려 영원히 계승될 가치가 있는 장수의 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춤으로 자리매김 하는 기폭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난해 성인·학생 독서율 모두 감소... 20대만 증가

문체부,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통계 결과 발표

지난해 성인과 학생의 종합 독서율이 모두 감소했다. 단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증가, 78.1%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인 6000명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독서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1년간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전년 대비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 들었다.

단 20대 청년층의 독서율은 78.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성인 연령층과 비교해 높은 독서율과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연간 종합독서율은 91.4%, 연간 종합독서량 34.4권으로 전년보다 독서율은 0.7%포인트, 독서량은 6.6권 감소했다.

종이책 독서율은 성인 40.7%, 학생 87.4%로 전년 대비 각각 11.4%포인트, 3.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9%, 학생은 49.1%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 11.9%포인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학생과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져 독서생활에서의 전자책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리책(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4.5%, 학생은 14.3%로 전년에 비해 성인은 1%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학생은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독서 생활 변화'에 대해 성인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나, 학생의 경우 '독서량', '종이책 독서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40% 이상이었다.

단 실제 학생의 전체 독서량과 종이책 독서 시간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증가하지 않아, 주

관적 인식과 실제 독서생활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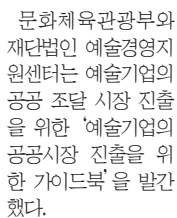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26.5%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으며, 26.2%는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 공부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년 사이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종합 독서율 변화 추이를 보면 50대는 9.2%포인트 하락한 35.7%, 60세 이상은 8.6%포인트 하락한 23.8%로 지속적인 하락 경향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 독서율은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포인트 낮았으며, 독서량과 독서시간도 적게,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 지역 간 주요 독서 지표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예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위한 가이드북'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예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예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은 예술기업이 공공계약 제도를 이해하고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공공시장 정보와 문화예술 관련 입찰 사례 분석 등 실제 입찰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실용서로 구성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크게 '공공계약 제도 이해하기', '입찰 참가 자격 갖추기', '공공시장 정보 수집하기', '실전 입찰'로 구성되며, '문화예술 관련 입찰 리스트 사례 예는 조달정보 개방포털 계약 사례와 기타 행사, 축제, 전시, 공연,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음원 제작 서비스 등에 관한 사례를 담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가이드북이 공공시장 제도 이해 및 실전 입찰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예술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벨기에도 K물결... 전세계 한류팬 콘텐츠 140편 전시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17일부터 '토크 토크 코리아 2021' 전시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관하는 전 세계 한류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40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원에 따르면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3개 부문 9개 세부 주제로 오디션, 한복 화보, 현대 국악, 한국 장기자랑, 한국 순간 사진 등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보내온 콘텐츠다.

콘텐츠들은 한국문화원 전시실에 설치된 4개의 모니터를 통해 작품을 만든 참가자의 이름과 함께 게시된다. 특히 케이팝 팬이 직접 만

든 노래와 화려한 비주얼이 가득한 뮤직비디오 영상, 직접 재단한 한복 등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콘텐츠가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연출한 작품과 세종대왕, 이순신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을 비롯해 한글, 한식 등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하는 작품 등은 이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다.

문화원은 전시와 함께 현지인들이 전시 참여에 참여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